

국어 영역

짝수형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면 산에 해가 기울고 별이 속삭인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 문형 (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짝수형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의 독서는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해석적 상호작용’ 속에서 의미가 재구성되는 과정이다. 독서 행위의 본질을 규명하려는 시도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전개되어 왔다.

첫째, 전달 중심 관점은 독서를 저자가 전달한 의미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으로 본다. 이 관점에서는 텍스트에 이미 고정된 의미가 존재하며, 독자의 역할은 이를 오해 없이 ‘정확히 복원’하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학술 논문이나 기술 매뉴얼과 같은 문서들이 이 관점에서 이상적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방식은 독자를 의미 형성의 주체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둘째, 구성 중심 관점은 텍스트의 의미가 독자의 경험, 배경 지식, 가치관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다고 본다. 동일한 소설을 읽더라도 독자마다 전혀 다른 해석을 제시하는 이유는, 텍스트가 제공하는 단서가 독자의 인지 구조 속에서 다르게 결합되기 때문이다. 이 관점은 문학 작품 해석이나 예술 비평에 유용하지만, 저자의 의도를 무시할 경우 원래 의미와 지나치게 동떨어진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상호작용 중심 관점은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관계를 ‘의미 협상’으로 파악한다. 텍스트는 일정한 구조와 의미 잠재력을 가지지만, 독자는 이를 자신의 해석 틀로 조정하고 확장한다. 예컨대, 고전 시를 읽을 때 독자는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언어적 맥락을 고려하면서도, 현재 자신의 문제의식과 연관지어 의미를 새롭게 부여할 수 있다. 이 관점은 독서가 단순 복원도, 전면적 재구성도 아닌, ‘제한된 자유’ 속에서 이루어지는 창조 행위라는 점을 부각한다.

결국 독서의 가치와 효과를 논하려면, 독자가 처한 맥락과 텍스트의 성격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실용 문서에서는 전달 중심의 정확성이, 문학적 독서에서는 구성 중심의 개방성이, 그리고 학제 간 융합 텍스트에서는 상호작용 중심의 균형성이 각각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독서 교육 역시 특정 관점만을 절대화하기보다, 읽는 목적과 텍스트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관점을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달 중심 관점과 구성 중심 관점 모두 독자의 해석이 텍스트의 의미를 변형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구성 중심 관점은 저자의 의도보다 독자의 경험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 ③ 상호작용 중심 관점은 텍스트의 의미를 독자의 주관에 따라 무제한 확장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전달 중심 관점은 문학 작품 해석에 가장 적합한 관점으로 제시된다.
- ⑤ 세 관점 모두 독자를 의미 형성의 능동적 주체로 전제하고 있다.

2. 글쓴이가 ‘상호작용 중심 관점’을 설명할 때 사용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의를 제시한 뒤, 그 관점을 다른 관점과 비교하여 장단점을 부각하였다.
- ② 개념의 기원과 역사적 전개 과정을 서술하여 관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③ 구체적 사례를 들어 그 관점의 특성을 드러내고, 함축적 비유로 의미를 강화하였다.
- ④ 핵심 개념을 도식화하여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그 구조를 해설하였다.
- ⑤ 반론을 제시하고 이를 반박함으로써 해당 관점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3.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필기 내용이다. 이 중에서 글의 논지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모두 고르면? [3점]

학생 필기

- ㄱ. 구성 중심 관점은 텍스트의 의미를 전적으로 독자가 새로 만들어낸다고 본다.
- ㄴ. 상호작용 중심 관점은 독자가 텍스트를 해석할 때 시대적·언어적 맥락을 고려해야 함을 전제한다.
- ㄷ. 전달 중심 관점은 독자가 의미 형성에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고 본다.
- ㄹ. 독서 교육에서는 특정 관점 하나만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시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ㄹ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칸트는 근대 철학의 경험론과 합리론이 각기 빠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식 과정을 감성(感性)-지성(知性)-이성(理性)의 삼분 구조로 재구성했다. 그는 감성을 단순한 수동적 수용이 아니라, 공간과 시간이라는 선형적 직관 형식을 통해 주어지는 ‘정돈된 수용’으로 보았다. 공간과 시간은 경험 이후에 얻어진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경험이 성립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요구되는 직관의 조건이다. 따라서 어떤 경험이든 필연적으로 공간적·시간적 구조를 지니게 되며, 이는 주체 내부의 형식적 능력에 의해 보편적으로 보장된다.

지성은 이러한 감성의 자료를 범주라는 순수 개념을 통해 종합한다. 범주는 양·질·관계·양상의 네 항목 아래 12개로 분류되며, ‘판단’을 가능케 하는 구조적 틀을 제공한다. 이처럼 감성과 지성의 선형 형식이 결합하여 ‘경험적 인식’을 구성한다. 칸트가 말하는 ‘대상’은 외부 세계의 물자체(Ding an sich)가 그대로 재현된 것이 아니라, 감성과 지성의 형식에 의해 구성된 ‘현상’이다.

그는 물자체의 인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했다. 현상은 인식 주체의 형식에 의해 필연적으로 구성되기에, 물자체는 인식의 경계 밖에 있으며, 다만 ‘사유의 요청’으로만 자리한다. 이로써 칸트는 ‘대상은 인간 인식의 조건 아래에서만 주어질 수 있다’는 인식론적 전회를 완성했다.

그러나 칸트의 체계는 ‘선형적 형식의 불변성’을 전제함으로써, 인식 내용의 다양성을 역사적·문화적 맥락과 무관하게 설명하려는 경향을 지녔다. 예컨대 동일한 천문 현상을 한 사회는 신성한 징조로, 다른 사회는 과학적 현상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단순한 ‘감각 자료의 결핍’이 아니라 인식 형식 자체가 문화·언어 속에서 변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맥락에서, 해석학·현상학 전통은 칸트가 간과한 ‘역사적 조건성’을 부각시킨다. 특히 해석학자들은 ‘보편적 형식’이라는 개념이 실은 서구 근대 인식 구조의 산물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식의 형식조차 역사적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나)

가다머는 『진리와 방법』에서 인간 이해의 본성을 ‘역사성’과 ‘언어성’에 매개된 해석 행위로 규정하며, 칸트식 선형 구조의 고정성을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과정이 객관적 재현이 아니라, 해석자와 대상이 상호작용하며 서로의 의미 지평을 변형시키는 사건이라고 보았다.

그의 ‘수평 융합(Fusion der Horizonte)’ 개념에서, 하나의 수평은 해석자가 속한 역사·문화·언어의 총체이고, 다른 하나는 해석 대상이 형성된 역사·문화·언어의 총체다. 이해란 이 두 수평이 충돌하고 대화하며, 때로는 긴장을 유지한 채, 새로운 의미의 지평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생성된 의미는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특정 맥락 속에서만 유효한 잠정적 진리다.

가다머는 ‘전통’을 단순히 극복해야 할 제약이 아니라, 이해의 가능 조건으로 보았다. 전통은 우리에게 특정한 해석 틀을 제공하며, 이 틀이 없다면 어떤 의미 부여도 불가능하다. 동시에 전통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해 행위를 통해 재해

석·변형된다. 언어 역시 단순한 전달 수단이 아니라, 의미가 형성되는 장(場)이며, 이해는 본질적으로 언어를 떠나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편성은 불변적 형식의 동일성에 근거하지 않는다. 대신, 서로 다른 역사적 조건이 대화와 상호 해석을 거쳐 형성하는 개방적 합의 속에서만 보편성이 성립한다. 이는 ‘형식적·선형적 동일성’에 뿌리를 둔 칸트의 보편성을 ‘대화적·역사적 형성’으로 재정의하는 시도다. 나아가 가다머는 ‘진리’ 자체도 절대적 판정이 아니라,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여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4. 다음 중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인식의 보편성을 주체 내부의 선형 형식에서 찾지만, (나)는 역사적·언어적 상호작용에서 찾는다.
- ② (가)는 감성과 지성의 선형적 형식이 결합하여 현상을 구성한다고 보지만, (나)는 대상이 이미 고정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전제한다.
- ③ (가)는 인식 내용의 차이를 형식 외부의 조건에 기인한다고 보나, (나)는 형식 자체의 역사적 변형 가능성을 강조한다.
- ④ (가)는 물자체의 인식 가능성을 부정하지만, (나)는 진리가 잠정적이고 재구성된다고 본다.
- ⑤ (가)와 (나) 모두 인식 주체의 ‘의미 구성’ 능력을 중시하지만, 그 기원과 성격에 대한 설명은 다르다.

5. 다음 중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공간’과 ‘시간’은 경험적 관찰로부터 귀납된 개념이다.
 ㄴ. 범주는 경험 내용을 분류하는 실증적 범주 체계이다.
 ㄷ. 현상은 주체의 선형 형식에 의해 구성된 결과물이다.
 ㄹ. 물자체는 현상의 바탕이 되지만 인식의 대상은 아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6. 다음은 한 연구자가 제시한 가상의 사례이다. 이를 (가)와 (나)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 사회에서 ‘시간’을 원형적 순환으로 이해하고, 다른 사회에서는 선형적 진행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 ① (가)에서는 두 사회 모두 동일한 선형적 시간 형식 안에서 경험을 배열한다고 본다.
- ② (가)에서는 인식 차이를 문화적 해석의 산물이라 보기 어렵다.
- ③ (나)에서는 두 사회의 시간 개념 차이가 지평 융합 과정을 통해 상호 변형될 수 있다고 본다.
- ④ (나)에서는 시간 개념이 언어·전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한다.
- ⑤ (가)와 (나) 모두 시간 개념의 문화적 변형을 전제한다.

7.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한 예술 작품에 대해 서로 다른 문화권의 비평가들이 전혀 다른 평가를 내렸다. 첫 번째 비평가는 작품의 구도를 수학적 비례와 대칭의 완성으로, 두 번째 비평가는 전통적 상징과 서사의 조화로 해석했다.

ㄱ. (가)에서는 두 비평가 모두 동일한 범주를 사용했지만, 범주에 적용된 경험 내용이 달라 평가가 달라졌다고 본다.

ㄴ. (가)에서는 각 비평가의 해석이 그들의 역사적 전통과 무관하게 성립한다고 본다.

ㄷ. (나)에서는 서로 다른 해석이 새로운 이해의 지평을 창출할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본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8. <보기>를 읽고, 이를 (가), (나)의 관점에서 각각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최근 한 언어학 연구는 ‘색채 구분’이 언어마다 다르며, 색 명칭의 범위 차이가 색 지각 자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 ① (가) - 모든 인간은 동일한 선형적 감성 형식을 갖기에, 지각 가능한 색의 연속성은 보편적이다.
- ② (가) - 언어 차이에 따른 색 구분의 차이는 단지 범주 적용 이전의 감각 자료 차이 때문이다.
- ③ (나) - 색채 경험의 형성은 언어와 전통의 영향 아래에서 달라질 수 있다.
- ④ (나) - 서로 다른 언어 사용자들의 색채 개념은 대화와 상호 해석을 통해 변형될 수 있다.
- ⑤ (가) - 언어 차이에 의해 지각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한다.

9. 다음 중 (나)에 쓰인 ‘잠정적 진리’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사적·언어적 맥락에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타당한 진리
- ② 특정 맥락에서 유효하지만 변동 가능성을 내포한 진리
- ③ 해석자의 주관적 취향에 따라 임의로 변하는 진리
- ④ 전통과 언어의 제약에서 벗어난 완전한 진리
- ⑤ 형식적 동일성에 의해 확정된 절대적 진리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세기 초반, 미술계에서는 ‘예술 작품의 본질’을 재정의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었다. 인상주의가 대상의 순간적 인상과 빛의 효과를 포착하려 했다면, 그 이후 등장한 세잔은 사물의 구조적 본질을 기하학적 형태로 환원함으로써, 시각 경험에 내재한 질서를 회화적 언어로 재구성하려 했다. 이는 단순히 기법의 변화를 넘어, ‘재현’의 개념 자체를 변형시켰다. 세잔의 회화에서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모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개입하는 주체의 시각적 구조와 해석을 드러내는 것이 핵심이 된다.

이러한 전환은 곧 큐비즘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피카소와 브라크는 전통적 원근법과 단일 시점의 구속을 버리고, 사물을 여러 시점에서 관찰한 단편적 형상을 하나의 화면에 병치했다. 이를 통해 회화는 더 이상 ‘창문’처럼 외부 세계를 투명하게 비추는 매개가 아니라, 화면 자체가 의미 생성의 장이 되었다. 이 시기부터 ‘형식’은 단순한 전달 수단이 아니라 작품의 본질적 구성 요소로 간주되었다. 나아가, 형식이 자율성을 가지며 ‘내용’과 동등하거나, 심지어 내용 그 자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형식의 자율성은 음악 이론과도 비교된다. 한 교향곡이 특정 사건을 묘사하지 않더라도, 악장 간의 주제 전개, 화성 진행, 리듬 구조의 내적 필연성이 곧 작품의 의미를 형성한다는 ‘절대음악’의 관점이 그것이다. 회화에서의 추상화 운동은 이러한 음악적 ‘순수 형식’ 개념과 닮아 있었다. 칸딘스키는 색채와 선의 배치가 감정과 영적 상태를 직접 환기시킬 수 있다고 믿었으며, 이는 대상 재현 없이도 회화가 심미적·정신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형식 자율성론은 곧 반론에 부딪혔다. 비평가들은 형식이 완전히 자율적이라면, 작품 해석에 필요한 사회적·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색과 구도의 회화라도, 그것이 제작된 시대와 작가의 사회적 위치, 당대 미술 제도의 구조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따라서 형식은 결코 맥락으로부터 독립할 수 없으며, 작품은 형식적 구조와 역사·사회적 맥락의 상호작용 속에서만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해석학적 관점으로 확장된다. 해석학에 따르면, 관람자의 이해는 작품의 형식적 특성과 관람자가 속한 문화·언어·역사적 배경이 ‘지평 융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이때 의미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상호 해석의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된다. 예를 들어, 한 추상화의 평면적 구성은 형식적으로 동일하더라도, 이를 보는 이가 전통적인 산수화를 보아온 동아시아 화론의 배경을 가진 사람인지, 유럽 모더니즘의 시각 언어에 익숙한 사람인지에 따라 전혀 다른 감정적·지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결국, 예술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 ‘형식의 자율성’과 ‘맥락 의존성’은 서로 배타적인 절대 원리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는 두 축이다. 형식은 작품이 작동하는 내적 논리를 제공하고, 맥락은 그 형식을 해석 가능한 의미망 속에

위치시킨다. 예술 이론의 과제는 이 두 축이 어떻게 긴장과 조화를 이루는지, 그리고 관람자의 해석이 그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 있다.

10. 형식 자율성론과 맥락 의존성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형식 자율성론은 형식이 독립적인 의미 생성 능력을 가진다고 본다.
- ② 맥락 의존성론은 형식의 구조가 의미 형성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본다.
- ③ 형식 자율성론은 회화에서 재현의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④ 맥락 의존성론은 동일한 형식도 역사·사회적 조건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 ⑤ 두 입장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11. 다음 중 윗글에 나타난 관점을 적용한 해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칸딘스키의 작품은 형식 자체가 감정을 직접 환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식 자율성론의 사례가 된다.
 ㄴ. 큐비즘 회화는 시점 병치를 통해 형식의 내적 구조를 강조하며, 이는 절대음악의 개념과 유사하다.
 ㄷ. 세잔의 회화는 대상을 기하학적으로 단순화했으므로 맥락 의존성론의 예시에 해당한다.
 ㄹ. 추상화의 평면 구성에 대한 해석이 관람자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해석학적 맥락 의존성의 사례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2. 다음 상황을 윗글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 전시회에서, 동일한 추상화를 본 유럽인 관람자는 색과 선의 조화에서 음악적 리듬을 느꼈고, 동아시아인 관람자는 전통 수묵화의 여백미를 떠올렸다.

- ① 형식 자율성론의 관점에서는 두 반응 모두 작품의 형식 자체에서 비롯된 심미적 경험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② 맥락 의존성론의 관점에서는 각 관람자의 문화적 배경이 해석의 차이를 만든다고 본다.
- ③ 형식 자율성론의 관점에서는 관람자의 문화적 배경이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 ④ 해석학적 관점에서는 두 반응이 지평 융합의 결과라고 본다.
- ⑤ 위 상황은 동일한 형식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낳는 사례이다.

1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점]

—<보 기>—

한 사진작가가 동일한 구도를 활용해 두 작품을 제작했다. 첫 번째는 전쟁 중인 국가의 참상을 담은 것이고, 두 번째는 평화로운 일상의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ㄱ. 형식 자율성론은 두 작품이 동일한 구도를 공유하므로 형식적 완결성 측면에서 동등하다고 본다.
 ㄴ. 맥락 의존성론은 두 작품의 의미 차이를 역사적 상황과 사회적 맥락에서 찾는다.
 ㄷ. 해석학적 관점에서는 관람자가 전쟁 경험이 있는지 여부가 작품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 ① ㄴ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탄소 감축 정책은 크게 ‘가격 부과형’과 ‘총량 규제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가격 부과형의 대표적인 형태는 탄소세로,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 1톤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탄소세의 핵심 장점은 예측 가능성과 행정 효율성이다. 세율이 사전에 명확히 규정되기 때문에 기업은 중장기 투자 계획을 세울 때 탄소 배출 비용을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배출량의 총량을 직접 통제하지 못하므로, 환경 목표 달성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총량 규제형의 대표적인 제도는 ‘배출권 거래제’이다. 정부는 일정 기간 동안의 국가 혹은 산업별 총 배출 허용량을 설정하고 이를 개별 기업에 할당한다. 각 기업은 배출권 범위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으며, 초과분은 시장에서 추가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반대로,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적으면 잉여분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배출권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하며, 이는 탄소 감축의 경제적 유인을 형성한다.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는 각각 한계를 지닌다. 탄소세는 배출량을 확실히 줄일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배출권 거래제는 시장 가격의 변동성이 높아 기업의 비용 예측이 어렵다. 이 때문에 일부 국가는 두 제도를 혼합한 ‘하이브리드형’ 제도를 채택한다. 예를 들어, 배출권 거래제에 ‘가격 하한선’과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거나, 배출권 외부에서 일정 비율의 탄소세를 병행 부과하는 방식이다. 가격 하한선은 시장 침체 시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하락하는 것을 막고, 가격 상한선은

급격한 가격 폭등을 억제해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국제적으로는 ‘연계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서로 다른 국가나 지역의 배출권 거래제를 상호 연계하면, 각 시장의 가격은 균등화되고 거래 효율이 향상된다. 이는 총 감축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제도 설계와 감독이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다. 특히 연계된 시장에서의 ‘배출권 수급 불균형’은 한 국가의 정책 변화가 다른 국가의 시장 가격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국가가 경기 침체로 인해 할당량을 대폭 늘리면, 전체 연계 시장에서 배출권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

또한, 국제 배출권 시장은 투기적 거래와 정보 비대칭 문제에 취약하다. 일부 대형 금융기관은 가격 변동성을 이용해 단기 차익을 추구하고, 이는 실물 배출권 수요와 무관하게 시장 가격을 왜곡할 수 있다. 따라서 선물시장 규제, 거래 투명성 강화, 실시간 배출량 검증 시스템 등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한편, 탄소 감축 정책의 효과는 단순히 제도 설계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국가의 산업 구조, 에너지 믹스, 기술 혁신 속도, 대중 수용성 등 복합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고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국가는 단기적으로 감축 비용이 높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완화적 규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중심의 국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감축 비용을 감당하며 강도 높은 규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1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탄소세는 배출권 거래제보다 배출량의 변동성 억제에 유리하다.
 - ② 배출권 거래제는 가격 변동성이 커 기업의 비용 예측에 어려움이 있다.
 - ③ 하이브리드형 제도에서는 배출권 가격의 상·하한선을 설정해 가격 급등락을 완화할 수 있다.
 - ④ 연계 시장에서는 한 국가의 할당량 조정이 다른 국가의 배출권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⑤ 산업 구조와 에너지 믹스는 탄소 감축 정책의 실효성에 영향을 미친다.

[15~17] 다음 <보기>는 세 나라(갑국·을국·병국)의 탄소 감축 제도 현황과 초과 배출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다.

<보기>	
• 갑국 :	할당량 1억 톤, 배출량 1억 500만 톤, 벌금 단가 50달러/톤
• 을국 :	할당량 8천만 톤, 배출량 8천 3백만 톤, 벌금 단가 40달러/톤
• 병국 :	할당량 6천만 톤, 배출량 6천 5백만 톤, 벌금 단가 60달러/톤

15. 윗글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연계 시장이 없는 경우 총 벌금액이 가장 큰 국가는? (단, 벌금 단가는 각 국가 법률에 따른다.)
- ① 갑국
 - ② 을국
 - ③ 병국
 - ④ 갑국과 병국
 - ⑤ 세 나라 모두 동일

16. 다음은 세 나라가 연계 시장을 형성했을 때의 상황이다.

<보 기>	
(가) 시장 가격은 30달러/톤으로 균등화된다.	
(나) 초과 배출 기업은 벌금 대신 배출권을 구매한다.	
(다) 잉여 배출권을 가진 기업은 이를 시장에 판매한다.	

이 보기가 윗글과 모두 부합하려면, 다음 중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 ① 세 나라의 벌금 단가가 모두 3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 ② 세 나라의 벌금 단가가 모두 30달러 초과이어야 한다.
- ③ 세 나라 모두 초과 배출량이 동일해야 한다.
- ④ 배출권 시장에서의 거래 비용이 무시할 만해야 한다.
- ⑤ 배출권 가격은 시장 개입 없이 형성되어야 한다.

17. 연계 시장이 형성되어 초과 배출량 전량이 30달러/톤에 거래된다고 할 때, 세 나라가 구매해야 하는 총 비용은 얼마인가? (단, 모든 국가는 자신의 초과 배출량을 전량 시장에서 구매하며, 1달러 단위로 계산한다.) [3점]
- ① 1,800만 달러
 - ② 2,400만 달러
 - ③ 3,000만 달러
 - ④ 3,900만 달러
 - ⑤ 4,200만 달러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조선 중기의 한 고을 원님은 부인과의 사이에서 두 딸, 장화와 홍련을 두었다. 장화는 열다섯 살, 홍련은 열세 살로, 모두 용모가 빼어나고 덕행이 단정하였다. 그러나 부인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원님은 새 부인을 맞이하였다. 새 부인 배씨는 처음에는 두 딸에게 자상한 듯하였으나, 이내 시기와 질투가 깊어졌다. 원님이 근무 차 외출하면 배씨는 계모로서 두 딸을 함부로 대하고 모진 구박을 일삼았다. 결국 계모는 자신의 친아들 방정을 장차 원님의 적자로 세우고자, 두 딸을 모함하여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된다.

그 날은 늦여름의 장대비가 장마처럼 퍼붓고 있었다. 마당의 고랑마다 빗물이 흘러 넘치고, 처마 끝에서는 물줄기가 줄곧 땅을 때렸다. 배씨는 이런 날씨를 핑계 삼아 두 소녀를 집 안 깊은 안채로 불러들였다. 방안은 이미 장지문을 닫아 어두컴컴하였고, 한쪽에는 방정이 무심한 듯 장난감을 굴리고 있었다. 배씨의 눈빛은 살기가 번득였고,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떠올랐다.

“너희 두 아이, 요즘 하늘이 무섭지도 않더구나. 사당에 가서 제사상 물건을 함부로 집어 먹는다지?”

장화가 눈을 크게 뜨고 대답하였다.

“계모마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감히 제사상 음식을 손대겠습니까?”

그러나 배씨는 손을 휘젓으며 말을 끊었다.

“거짓말은 말아라. 방정이가 똑똑히 보았다고 하지 않느냐. 그 죄, 사대부가의 규율로는 중한 법이다.”

홍련이 옆에서 울먹이며 나섰다.

“방정이는 아직 어린아이라 잘못 본 것입니다. 저희는 결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배씨는 들은 체도 않고, 오히려 방정을 불러세워 말하게 했다.

“네가 본 일을 모두 말하거라.”

방정은 계모의 눈치를 살피더니, 느릿하게 입을 열었다.

“제가... 보았습니다. 두 누이께서 밤중에 제사상을 열어 과일과 고기를 가져가셨습니다.”

장화는 억울함에 치를 떨었다. 그러나 배씨의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단정 지은 사람의 그것이었다.

“그 죄를 씻으려면 네 아버지 스스로 고하거라. 아니면...”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고, 대신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다. 장화와 홍련은 눈을 마주쳤으나, 계모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숨을 삼켰다.

다음 날, 배씨는 원님이 관청에 나간 틈을 타 하인들을 불렀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작은 뗏목과 긴 포승줄, 그리고 몇 자 길이의 돌맹이 꾸러미를 준비하게 하였다. 빗줄기는 여전히 굵었고, 냇물은 범람 직전이었다.

“이 아이들을 뗏목에 태워 냇가로 데려가거라. 발이 미끄러져 빠진 듯 꾸며야 한다.”

하인들은 차마 그 명을 따르기 어려워 망설였으나, 배씨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장화와 홍련은 억지로 끌려 나가 포승줄로 결박되었다. 장화는 끝까지 저항하며 말했다.

“이 억울함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것입니다. 마님, 훗날 이 일을 두고두고 후회하실 것입니다.”

홍련 역시 눈물에 젖은 얼굴로 외쳤다.

“아버님께서 이 일을 아신다면 용서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는 장맛물 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뗏목이 냇물 위에 띄워지고, 두 자매는 서로 등을 맞댄 채 묶여 있었다. 하인 중 한 명이 마지막으로 그들의 눈빛을 피하며 포승을 점검했다. 그리고 돌맹이 꾸러미가 포승 끝에 매어졌다. 배씨는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손짓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끝내게 했다.

물살이 뗏목을 휘몰아쳤고, 두 소녀의 모습은 이내 강물 속으로

사라졌다. 잠시 후, 물결만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렁였다.

그날 밤, 배씨는 태연하게 집안일을 지휘하며 하인들에게 누설하지 말라고 엄명했다. 그러나 몇몇 하인은 장화와 홍련이 마지막에 남긴 눈빛을 잊지 못했다.

며칠 뒤, 인근 마을 냇가에서 두 자매의 시신이 나란히 떠올랐다. 시신은 이미 물에 불어 있었으나, 손은 여전히 단단히 묶여 있었고, 돌맹이는 그 자리에 매달려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죽음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원님에게 전해졌을 때, 그는 크게 놀랐다. 그러나 배씨는 이미 울음을 지으며 남편 앞에 나아가, 두 딸이 “몰래 나갔다가 발을 헛디뎠다”고 설명했다. 원님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으나, 의심의 씨앗은 그의 마음 한켠에 남았다.

장례가 치러진 지 석 달 뒤, 마을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밤마다 원님의 집 근처 연못가에서 두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어떤 이들은 달빛 아래 물 위로 흐릿한 형체를 보았다고도 했다. 이 소문은 점점 퍼져 결국 원님의 귀에도 들어갔다.

원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연못가에 사람을 보내 살피게 했다. 그날 밤, 파수꾼이 연못가에 숨어 있었는데, 과연 자정이 되자 희미한 달빛 속에 한복 차림의 두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흐느끼며 연못 주위를 맴돌았다. 파수꾼이 가까이 다가가자, 두 여인은 물속으로 스르르 사라졌다.

파수꾼의 증언을 들은 원님은 비로소 딸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모의 잔혹한 속셈을 의심하게 되었다.

- 작자 미상, 「장화홍련전」 -

1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배씨는 방정의 증언을 이용해 두 자매를 제사상 도둑으로 몰았다.
- ② 장화와 홍련은 계모의 협박에 굴복해 죄를 인정하였다.
- ③ 장화는 죽음 직전에도 계모에게 후일의 후회를 경고했다.
- ④ 두 자매의 시신은 발견 당시에도 결박과 돌맹이가 그대로 있었다.
- ⑤ 원님은 처음에는 계모의 말을 믿었으나 이후 의심을 품게 되었다.

19. 다음 중 윗글에서 ‘배씨의 범행 은폐’와 가장 관련 깊은 서술은?

- ① 하인들에게 입단속을 시키는 장면
- ② 원님이 딸들의 죽음을 사고로 믿는 장면
- ③ 시신의 결박 상태 묘사
- ④ 파수꾼의 증언 내용
- ⑤ 마을 사람들의 소문

20. 윗글의 서술 전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의 대화를 통해 심리와 갈등을 드러낸다.
 - ② 시각·청각적 묘사로 분위기를 형성한다.
 - ③ 사건의 발단과 결말을 직접 서술 없이 독자에게 추론하게 한다.
 - ④ 구체적 행동 묘사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낸다.
 - ⑤ 소문과 목격담을 통해 사건의 진실에 접근한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사건의 진실이 은폐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목격자나 증언자가 권력자에게 신뢰받지 못해야 한다. 둘째, 가해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건의 외형을 조작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흔적이 물리적 증거로 남으면, 시간이 지나도 진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커진다.

- ① 배씨가 하인들에게 입단속을 시킨 것은 첫째 조건과 관련된 다.
- ② 원님이 시신의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면, 둘째 조건은 충족되지 않았을 것이다.
- ③ 시신의 결박과 돌맹이는 물리적 증거에 해당하며, 진실 폭로 가능성을 높인다.
- ④ 파수꾼의 증언은 첫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원님이 처음에 계모를 의심하지 않은 것은 둘째 조건과 직접 관련된다.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강나루 건너서
 밀밭 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삼백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 박목월, 「나그네」-

(나)

흙 속에는 생명이 있다. 씨앗은 흙 속에서 자신의 시간을 견디며, 때가 되면 싹을 틔운다. 바람 속에도 생명이 있다. 바람은 씨앗을 옮기고, 꽃가루를 전하며, 세상을 순환하게 한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우리는 바람과 흙의 아이들이다. 가만히 머물러 있어야 할 때도 있고, 어디론가 떠나야 할 때도 있다. 머물러야 할 때 떠나는 것은 뿌리를 잃는 일이고, 떠나야 할 때 머무는 것은 바람을 잃는 일이다.

- 이어령,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다)

스무 살에
 나는
 그 꽃을 보았다

삼십에
 나는
 그 꽃을 보았다

사십에
 나는
 그 꽃을 보았다

그리고
 그 꽃은
 나를 보았다

- 고은, 「그 꽃」-

22.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여정’의 의미를 다루지만, (가)는 주체의 내면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데 비해, (나)는 구체적 비유와 성찰을 통해 주제를 드러낸다.
 - ② (가)와 (다)는 반복적 구성을 통해 주제를 심화하지만, (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식 변화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가)와 다르다.
 - ③ (나)와 (다)는 대상을 의인화하여 서술하지만, (나)는 대상과 화자의 관계 변화를 중심에 두고, (다)는 대상의 본질적 속성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둔다.
 - ④ (가)는 화자의 시선을 따라 공간 이동을 묘사하며, 시간의 변화를 통해 주제를 제시한다.
 - ⑤ (나)는 서술자의 경험담을 중심으로 사건 전개를 보여 주지만, 추상적 사유는 배제한다.

23. (가)~(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심 대상을 제시한 후, 그에 대한 직접적 정의와 설명을 덧붙인다.
- ② 구체적 이미지를 반복하여 정서나 의미를 심화한다.
- ③ 화자나 서술자의 직접적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한다.
- ④ 복수의 인물 간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제시한다.
- ⑤ 청자를 향한 설득적 어조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24. (나)에 나타난 ‘바람’과 (가)에 나타난 ‘길’의 공통된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 존재가 맞닥뜨리는 불가피한 외적 환경
- ② 삶의 여정에서 방향과 속도를 규정하는 내적 동력
- ③ 주체가 통제할 수 없는 변화의 매개
- ④ 고정된 상태를 상징하는 정체성의 표상
- ⑤ 개인의 결단과 선택을 통해 형성되는 유일한 경로

25.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에 나타난 주제 구현 양상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문학 작품에서 ‘시간’의 활용은 주제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간은 선형적으로 흐르며 변화를 드러낼 수도 있고, 반복과 순환 속에서 불변의 가치를 부각할 수도 있다. 한편, 시간의 흐름을 통해 인물이나 화자의 인식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한다.

- ① (가)는 반복적 이미지와 ‘삼백리’라는 거리감을 통해 시간의 선형적 흐름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 ② (나)는 흙과 바람의 대비를 통해 시간의 순환과 불변성을 동시에 제시한다.
- ③ (다)는 동일한 대상을 시기별로 제시하되, 화자의 인식 변화보다는 대상의 불변성을 강조한다.
- ④ (나)와 (다)는 모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주체의 내면이 성숙하는 과정을 부각한다.
- ⑤ (가)와 (다)는 모두 시간의 반복을 통해 주체의 변화를 강조한다.

26. 다음은 학생이 (가)~(다)를 읽고 작성한 메모이다. 이 중 작품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구름에 달 가듯이’는 삶의 덧없음과 여정을 포용하는 태도를 상징
- ② (나) — ‘떠나야 할 때 머무는 것은 바람을 잃는 일이다’는 시기와 상황에 맞는 선택의 필요성을 강조
- ③ (다) — ‘그 꽃’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나, 화자와의 관계성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다
- ④ (가) —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은 화자가 도착지에

서 느끼는 안도감을 표현

- ⑤ (나) — 흙과 바람은 상호 대립적인 요소이면서도 생명의 순환 속에서 상보적 관계를 가진다

27. (다)에 나타난 ‘그 꽃’의 의미를 (나)의 내용과 연결해 해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에서 ‘그 꽃’은 바람에 흔들리며 사라지는 존재로, (나)에서의 ‘바람’과 유사한 덧없음을 지닌다.
- ② (다)에서 ‘그 꽃’은 시기마다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는 대상이며, (나)에서의 흙처럼 변함없이 주체를 지켜보는 속성을 지닌다.
- ③ (다)에서 ‘그 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자와 관계를 단절하고, (나)에서의 ‘떠남’처럼 변화와 분리를 상징한다.
- ④ (다)에서 ‘그 꽃’은 주체의 성장 과정에서만 의미를 가지며, (나)에서는 이러한 성장을 바람의 순환으로 비유한다.
- ⑤ (다)에서 ‘그 꽃’은 변치 않는 절대적 가치로, (나)에서는 흙과 바람 모두가 그러한 가치를 담는다.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나는 그 박준의 소설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해나가도 좋을 때가 온 것 같다. 다시 말해 두지만 박준의 소설이야말로 지금까지 내가 말한 편집자와 필자 사이의 미묘한 관계의 일면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는 박준이라 소상히 설명되어질 수가 있으니까 말이다. 그렇다고 박준의 경우 모든 것이 지금 말한 필자와 편집자의 관계 속에서만 설명되어질 수 있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는 우선 일반 필자가 아닌 소설 필자였다는 점에서도 그렇게는 될 수 없었고, 또 우리가 그의 작품을 기고 받게 된 경우도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구분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박준의 경우 역시 우리 잡자와는 편집자와 필자의 관계임이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그의 소설에서 비롯한 갈등도 일단은 그런 관계 속에서 충분한 설명이 가능한 것이었다.

언젠가 박준은 우리 쪽에서 청탁을 내기도 전에 스스로 자기의 소설을 한 편 나에게 우송해 왔다. 물론 우리 잡지에 그 소설을 발표하고 싶다는 의사에서였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박준이 문단을 나온 후로 이삼 년간 정력적인 작품활동을 계속하고 난 뒤, 그 즈음부터는 웬일인지 그의 이름이 차츰 사라져가고 있던 무렵이었다고 기억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느닷없이 그의 소설이 우리 잡지사로 날아든 것이다. 나는 물론 전부터도 그에게 한 번쯤 소설을 청탁해 보고 싶던 터이었다. 한데 얼핏 차례가 올 것 같지도 않고 또 직접 문학 면을 담당하고 있는 안형의 눈치가 탐탁스러워하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럭저럭 기회를 미루고만 있던 판이었다. 뜻밖에 굴러든 작품이 고맙지 않을 리 없었다. 다행이라 싶어 그 달로 곧 내보낼 생각을 하고 작품을 안형에게 넘겼다. 그 작품이 누구에게로 온 것이든 그것이 문학 담당자의 소관에 드는 원고인 이상, 일단은 안형의 검토가 있어야 하고, 게재 여부에 대

한 최초의 결정권도 실상은 그 안형에게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이었다.

한데 그때 안형은 박준의 소설을 읽어보고 나서는,

“이 소설 안 되겠어요. 그냥 내보냈다가는 공연한 문제가 생길 것 같은요. 좀 놔두고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웬일인지 한마디로 보류 결정을 내려 버리는 것이었다.

“왜 이야기가 신통칠 않습니까?”

“아니 뭐 이야기가 신통칠 않다기보다는…….”

“웬만하면 그냥 내보내도록 하지 그래요. 우리로선 박준 씨 소설이 처음 아닙니까?”

“글쎄요, 그렇긴 합니다만…… 역시 좀더 두고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요.”

끝내 고집을 꺾지 않으려는 눈치였다.

알 만한 일이었다. 안형은 전에도 종종 그런 고집을 부린 일이 있었다. 안형은 그 자신도 문학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는 이따금 다른 잡지에 자기의 평문을 발표하기도 하는 처지였다. 한데도 그는 이상스럽게 같은 문학 필자들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데가 있었다. 자세히는 알 수 없었지만 자신의 취향이 나 문학이념이 용납할 수 없는 동업자들에게는 여간해서 지면 배당을 해주지 않으려는 것 같았다. 바깥에서 들은 소문도 그랬다. 어쩌면 그는 바로 그 자신이 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문학도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더욱 인색하고 가혹해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안형의 그런 태도를 얼핏 동의할 수가 없었다. 한 작가와 편집자의 문학적인 주장이 서로 달라 있을 경우, 편집자는 그처럼 철저히 자기 의도만을 주장할 권리가 있을까. 의심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이 말은 편집자와 필자의 관계에 대한 앞서의 고백을 스스로 배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안형의 경우만은 역시 편집자의 권리를 다소간 양보하는 편이 옳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안형의 책임 지면이 다른 아닌 문학면이고, 우리 잡지가 종합지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이 말 역시 안형의 책임 지면이 문학면이라 해서 편집자의 취사선택 없이 아무렇게나 끌어모은 원고를 마구 꾸겨 넣어도 좋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문학면 원고에도 편집자의 일정한 편집 의도가 개입해야 하고 필자와 원고의 취사선택이 따라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문학면은 잡지의 다른 지면과는 역시 좀 다른 점이 있을 법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필자의 선택과 원고청탁 과정에서부터 다른 지면의 원고들에서보다는 편집자의 의도가 깊이 개입해 들어갈 수가 없다. 도대체 문학면의 원고들이란 어떤 일정한 편집자의 주장이나 그것에 의한 필자의 선택도 중요하겠지만, 그 창작 의도나 그 성과가 더욱 중요하게 읽혀져야 하는 것이니까 말이다. 그런 경우라도 편집자의 의도는 그 원고를 잡지 속에 처리하는 과정이나 방법 속에서 얼마든지 완성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아량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런 문학 원고들을 애초의 편집 의도에 상처를 입히지 않고도 얼마든지 떳떳하게 처리할 방법이 마련될 수 있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내키지 않는 사람들에게겐 처음부터 지면을 나누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이 어떻게 되어 그런지는 잘 알 수 없었지만 박준 역

시 안형에게는 오래 전부터 그런 달갑지 않은 필자에 속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 같았다. 한창 박준의 소설이 관심을 끌고 있었을 때까지도 그에게는 청탁 의사를 가져보지 않은 안형이었다. 박준의 소설이 저절로 굴러 들어온 것을 보고 한마디로 보류 결정을 내려 버린 것은 박준에 대한 안형의 그런 평소 생각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물론 안형은 그것을 보류하면서 ‘공연한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구실을 잊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공연한 문제’란, 아마 작품의 내용이 좀 과격해서 애초의 창작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필자나 편집자가 엉뚱한 봉변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가 아니면, 이미 구경꾼도 박수도 사라진 무대 위에서 저희들끼리 흥분하기를 좋아하는 문학논쟁 청부업자들을 또 한번 준동시키게 될지 모른다는 문학도적인 양심에서 나온 말일 수가 있기는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아 온 태도나 바깥소문으로는 안형이 그런 뜻으로 한 말 같지는 않았다. 나의 생각으로는 그 어느 것도 아니고 다만 자기의 취향에 맞지 않은 것을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려는 변명에서 나온 말만 같았다. 편집자의 양식으로는 쉽게 용납될 수 없는 태도였다. 문학면 편집자로서는 지나치게 편협스런 그의 취향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나 역시도 이젠 그러는 안형을 더 이상 간섭할 수는 없었다. 안형의 처분에 소설을 맡겨 둘 수밖에 없었다. 변명이 도리일지는 모르지만 역시 소설 원고에 대한 최초의 결정권은 안형의 소관사항이었고, 적어도 나는 한 부서에 대한 그만한 독자성과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나의 책임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만한 독자성이 보장된 다음이라야 비로소 한 부서 담당자로서의 책임이 누구에게나 깊이 실감될 수 있으리라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여튼 박준의 소설은 그렇게 되어 결국 우리 잡지사에서 불운한 낮잠을 자게 된 신세가 되고 말았는데, 사실을 말하자면 또 그 한 달만으로 간단히 낮잠을 끝낼 수가 없었던 것이 더욱 문젯거리였다. 안형은 웬일인지 다음달이 되어도 여전히 박준의 소설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려 하지 않고 있었다.

“어떻게 이번에는 박준 씨 작품을 내보내게 됩니까?”

지나가는 말처럼 물어 보면,

“글쎄요, 좀더 두고 보지요.”

여전히 같은 대답뿐이었다. 아니 안형은 박준의 소설을 그 한 두 달뿐 아니라 거의 반년 가까이 그렇게 책상 속에다 배짱 좋게 묵혀 두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박준으로부터 한 장의 항의문이 날아들었다. 박준이 직접 나타나지 않고 원고를 보내 왔을 때처럼 우편으로 보내 온 것이었다. 그것도 무슨 눈치가 엿보였는지 안형을 제쳐놓고 직접 나에게 보내진 것이었다.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앉아 있는 사람이기에 남의 소설을 받아 놓고도 가타부타 응답이 없느냐, 그토록 편견투성으로 빚어진 작자들이 어떻게 감히 잡지를 만들고 앉아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쪽 태도가 그만큼 못마땅했을 것도, 당연한 노릇이긴 했지만 아직 인사조차 없는 처지치고는 보통 괴팍스런 친구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박준의 그런 모욕적인 힐난에 대해서는 화를 내려 하지 않았다. 다짜고짜 욕을 퍼붓고 덤벼드는 그가 오히려 호감이 갔기 때문이었다. 괴팍

스런 정미도 어딘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만 여겨졌다. 더욱이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협박조로 내뱉고 있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이상스럽게 쓸쓸한 공감마저 느껴지고 있는 형편이었다.

“알아서들 해보시오. 왜 실어 주지도 않은 원고를 찾아가려고 하진 않느냐고 묻겠지요. 하지만 당신네들이 것처럼 나의 원고에 치사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겁을 먹었대도 마찬가지요) 그런 원고를 다시 찾아낸들 어디서라고 더 나은 잡지 양심을 만날 수 있겠소. 잡지란 잡지는 모두가 다 마찬가지요. 아마 그것은 당신들 잡지쟁이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요. 알아서들 해보시오.”

화를 낸 것은 오히려 안형 쪽이었다.

“이 친구 이제 보니 정말 못된 친구로구먼 그래. 어디 그럴 테면 얼마든지 그래 보라지. 그런다구 안 내보낼 소설을 내보내 주나..... 글썄 이쪽도 다 그럴 만한 생각이 있어서 이러고 있는 것인데 뭐 치사한 편견이 어떻구 어때?”

편견 때문이 아니라 정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기라도 한 듯 화를 내며 박준을 나무라려 들었다. 그리고 다시는 가부간의 말이 없이 훌쩍 몇 달을 더 넘겨 버리고 있었다.

그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어떤 술자리에선가 박준이 이제는 안형에게 애원을 하다시피 매달린 일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믿을 수도 확인할 수도 없는 이야기였다. 그야 사실이든 아니든 그 즈음부터는 어찌 된 일인지 다른 잡지에서도 박준의 소설은 별로 눈에 띄는 일이 드물어지고 있어서 도대체 그의 소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원고나 읽어보고 싶었으면서도 나 역시 늘 이런 저런 구실이 생겨 기회를 미루고 있었던 참인데, 그러다가 드디어는 이번 일이 생기고 만 것이다. 우리가 박준의 소설을 얻어 보관하게 된 경우는 대략 그러한 것이었다. 편집자와 필자의 관계로는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가 될 수밖에 없었다.

- 이청준, 「소문의 벽」 -

28.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박준의 작품이 문학적으로 미흡하여 게재를 보류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 ② 안형은 자신의 문학적 취향과 이념에 맞지 않는 필자에 대해서는 게재를 꺼리는 편이었다.
- ③ ‘나’는 박준과 편집자의 갈등이 오직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한다.
- ④ 안형은 다른 편집 부서와의 조율을 거친 후 박준의 소설 게재 여부를 결정하였다.
- ⑤ ‘나’는 문학면의 원고는 창작 의도가 중요하므로 편집자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인다.

29. 윗글의 내용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 ① ‘나’는 박준의 소설을 받자마자 안형에게 전달하였다.
- ② 안형은 박준의 소설이 ‘공연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③ ‘나’는 안형의 판단이 취향에 기반한 변명일 수 있다고 여겼다.
- ④ ‘나’는 안형의 결정권을 존중하여 다른 개입을 시도하지 않았다.

다.

- ⑤ ‘나’는 박준이 편집자의 판단을 수용하는 태도를 높이 평가하였다.

30. 다음은 ‘편집자의 원고 선정 원칙’에 관한 글이다. 이를 윗글에 적용한 판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원고 선정 과정에서 편집자는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우선시한다.

- ㉠ 원고의 문학적 완성도와 참신성
- ㉡ 원고가 지면의 성격과 편집 방향에 부합하는지 여부
- ㉢ 독자층의 수용 가능성과 사회적 반향에 대한 고려

- ① 안형은 ㉠보다는 ㉡에 더 무게를 두어 박준의 원고를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나’는 문학면의 특성상 ㉠을 중시하되, 편집자의 과도한 ㉡ 개입을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
- ③ ‘공연한 문제’ 우려 발언은 ㉢에 해당하는 판단의 근거로 볼 수 있다.
- ④ 박준의 항의문은 편집자가 ㉡과 ㉢을 지나치게 중시한 결과라고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나’는 안형이 ㉠보다 ㉢을 훨씬 중시하는 인물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31. 윗글의 상황 전개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 ㄱ. 필자는 박준의 작품을 처음부터 게재하기로 결정하였다.
- ㄴ. 안형은 박준의 작품을 반년 가까이 보류하였다.
- ㄷ. 박준은 직접 편집부를 찾아가 작품 회수를 요구하였다.
- ㄹ. 필자는 박준의 항의문에서 일부 공감할 만한 점을 느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ㄱ, ㄷ, ㄹ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구름 비 머저가고 시냇물이 불어온다.
배 떠라 배 떠라
낮대를 두리메니 깊은 흥을 금 못할까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연강첩장은 누가 그려냈는가

- 윤선도, 「어부사시사」 -

(나)

강호(江湖)에 병이 깊어 죽림(竹林)에 누웠더니,
관동(關東) 팔백 리의 방면을 맡기시니,
어와, 성은이야 갈수록 망극하다.
연추문 들어서 경회 남문을 바라보며,
하직하고 물러나니 옥절이 알맞게 섰다.
평구역 말을 갈아 흑수로 돌아드니,
섬강은 어디메오, 치악이 여기로다.
소양강 흐르는 물이 어디로 든단 말고,
고신거국에 백발도 하도 할샤.
동주의 밤을 지새워 북관정에 오르니,
삼각산 제일봉이 하마면 보이리로다.
궁왕 대궐 터에 오작이 지저귀니,
천고 흥망을 아는가 모르는가.
회양의 옛 이름이 마초아 같다 하시고,
급장유의 풍채를 다시 아니 볼 것인가.
영중이 무사하고 시절이 삼월인 제,
화천 시내길이 풍악으로 뻗어 있다.
행장을 다 풀어 두고 석경의 막대 짚어,
백천동 곁에 두고 만폭동 들어가니,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꼬리,
흩어지고 쏟아지는 소리 십 리에 자자하니,
들을 제에는 우레더니 보니는 눈이로다.

- 정철, 『관동별곡』 -

32. (가)와 (나)의 화자가 자연을 인식하는 태도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는 ‘낮대를 두리메니 깊은 흥을 금 못할까’에서 자연 속 활동에서 오는 흥취가 중심이지만, (나)에서는 ‘관동 팔백리에 방면을 맡기시니’에서 임금의 명을 수행하며 자연을 접하는 상황이 중심이다.
- ② (가)의 ‘연강첩장은 누가 그려냈는가’는 실제 경관의 기원에 대한 궁금증을 예술적 창작물과 연결하고, (나)의 ‘만이천봉을 역력히 헤아리니’는 경관의 규모를 체계적으로 인식하려는 태도다.
- ③ (가)와 (나) 모두 자연을 단순 배경이 아닌 화자의 감흥과 연결된 대상으로 인식하나, (나)는 임무와 직분에 따른 시선이 함께 드러난다.
- ④ (나)와 달리 (가)에서는 자연의 웅장함보다는 시각적·청각적

아름다움이 주로 강조된다.

- ⑤ 두 작품 모두 자연 경관의 창조자를 ‘조화옹’으로 명시하며 경외감을 표현한다.

33. (가)와 (나)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가)에서는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와 같은 의성·의태어가 자연 속 화자의 몰입을 강화한다.
- ㄴ. (나)에서 ‘많거든 좋지 마나 좋거든 많지 마나’는 산수의 수량과 아름다움이 서로의 가치를 배가시킴을 나타낸다.
- ㄷ. (가)의 화자는 현재 시점의 자연 경관에 만족하지만, (나)의 화자는 과거의 정치적 인물과 사건을 함께 환기한다.
- ㄹ. (나)에서 자연의 기운을 ‘인절을 만들고자’ 한다는 구절은 자연과 인간의 위대함을 동일 선상에서 바라보는 인식을 반영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ㄴ, ㄷ, ㄹ

34. 다음은 (가)와 (나)를 읽은 독자들의 비평 글이다. 옳게 진술한 독자를 고른 것은? [3점]

—<보 기>—

A: (가)는 자연을 ‘연강첩장은 누가 그려냈는가’처럼 인간의 예술적 창작물에 빗대어 인식하는 점이 흥미롭다. 반면 (나)는 ‘관동 팔백리에 방면을 맡기시니’에서 보듯 개인적 감흥 이전에 공적 임무가 전제된다.

B: (나)의 ‘많거든 좋지 마나 좋거든 많지 마나’는 경관의 규모와 아름다움이 서로를 조건짓는 관계를 드러낸다. 그러나 (가)에는 이런 상관관계 설정은 없다.

C: (나)와 달리 (가)는 화자가 관찰한 자연의 구체적 지리·수량 정보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고, 감각적 인상과 흥취가 중심이다.

- ① A, B의 진술이 옳다.
- ② A, C의 진술이 옳다.
- ③ B, C의 진술이 옳다.
- ④ A, B, C 모두 옳다.
- ⑤ A만 옳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빠른 정답

②	③	②	②	③	⑤	③	⑤	②	②
③	③	⑤	①	①	②	④	②	①	③
③	④	④	②	⑤	③	①	②	⑤	⑤
④	⑤	⑤	④						

나름 작년(2025학년도) 수능보다 한층 더 높은 난이도를 의도하며 문제를 구성하였으나,
실제 체감 난이도가 어떻게 다가갔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공통 과목만 제공하였으나, 주어진 범위와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 제작하였습니다.